

대본 읽고 뒷이야기 완성하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의 대본을 읽어 봅시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등장인물 : 동훈, 서현, 진혁, 미나, 재연, 선생님

#1. 교실 안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수업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학생들이 떠드는 모습.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아이, 뛰어다니는 아이, 필기하는 아이들 등등 활기찬 재잘거림이 가득한 교실.

안경을 낀 짧은 생머리를 한 주인공 동훈.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선다. 뒤 따라 들어오는 서현.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자신감 없이 걷는 모습. 웅성웅성 거리는 교실 안의 아이들.

선생님 : 안녕하세요! 여기 이 친구는 전학 온 최서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반이 됐으니깐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요. 알았죠?

아이들 : 네.

서현, 아이들을 향해 수줍게 인사를 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런 서현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여주는 선생님, 동훈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선생님 : 서현이는 저 쪽 동훈이 옆에 앉으면 되겠다.

서현, 자리로 걸어가서 동훈의 옆 자리에 앉으려는데 뒤에 앉은 진혁이 의자를 빼내어 넘어질 뻔 한다. 주위 친구들 모두 키득대고, 수업준비를 하던 선생님은 소리나는 쪽을 보며

선생님 : 왜 그래?

진혁 : 아, 아니에요. 선생님!

동훈이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서현이를 살짝 바라본다. 서현, 가방에서 필통과 공책을 주섬주섬 꺼내는 모습, 그러다 동훈이와 눈이 마주친다. 조심스럽게 옆에 있는 동훈이에게 인사를 한다.

서현 : 안녕.

동훈 : (잠시 어색해하다가 늦게 대답) 어 안녕.

서현 : 나, 나는 최서현이야…….

활동해요 3-2

동훈 : 난 김동훈.

이때 진혁,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혁 : 오! 얼레리 꿀레리! 분위기 좋은데?

동훈과 서현 당황하고, 진혁이는 계속 놀리며 킁킁댄다.

#2. 쉬는 시간, 교실 안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아이들 모두 교실로 돌아온다.

아이들 재잘재잘 놓고, 동훈이에게 미나와 재연이 다가온다.

재연 : 동훈아!

동훈 : 응

재연, 미나 일부러 동훈의 편으로 바짝 서서, 옆에 앉은 서현이가 보란 듯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낸다.

재연 : 먹을래?

재연, 동훈이에게 하나, 진혁에게 하나, 진혁이 옆에 아이에게 하나, 그리고 서현에게 사탕을 주려다가 빈손을 펴 보이며

재연 : 어? 더 없네…….

하나 남은 사탕을 자신의 입에 넣고 서현에게 메롱을 해 보이는 재연. 이를 보고 있던 서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려 공책에 뭔가를 쓴다.

미나 : 뭘 쓰는거야?

서현 : 응? 어, 그냥, 편지.

미나 : 어디보자.

미나, 서현의 공책을 빼앗고, 서현이는 어쩔 줄 몰라 찢찢 맨다.

서현 : 이리 줘.

미나 :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저는 서울에 왔어요.

서현 : 빨리 줘!!

미나, 재미있다는 듯 공책을 진혁에게 던지고, 서현이는 진혁에게 달려간다.

진혁, 공책을 동훈에게 던지고……. 공책을 받은 동훈이가 고민하는데, 저쪽에서 미나가
 미나 : 여기로 던져! 여기!

동훈, 미나에게 공책을 던지고 미나는 공책을 갖고 재빨리 교실 밖으로 달려 나간다. 아이들
 모두 재미있다는 듯 웃고, 울상이 된 서현,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한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지만, 그런 서현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동훈의
 얼굴에 비춰진다.

#3. 종례 시간, 교실 안

선생님 : 자, 알림장 펴고, 내일 체육시간에는 2인 1조로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아이들 : 네!

선생님 : 이기는 팀에게는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들 : 우와!

선생님 : 자, 다들 집에 갈 때 차 조심하고…….

아이들 :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 모두 우르르 가방을 싸고 정신없는데, 서현 혼자 끙끙거리며 책상 주위를 둘러본다.

서현 : 어디 갔지? 여기다 봤는데…….

동훈, 바닥에 떨어져있는 열쇠고리를 발견한다.

동훈 : (혼잣말) 어? 이걸 아까 서현이 가방에 달려 있던 건데?

동훈,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동훈 : (혼잣말) 바보.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른 척 가방을 메고 나가버린다.

계속해서 찾고 있는 서현의 모습.

#4. 다음날 아침, 교실 안.

참새가 짹짹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교실에 들어선
 동훈,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서현을 발견한다. 동훈, 서현의 곁으로 가보니 서현의 책상 위에는
 낙서가 되어 있고 서현을 놀려대는 아이들.

미나 : 서현아! (필통을 가리키며) 이걸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야?

활동해요 3-2

진혁 : 이 샤프는 괜찮은데? 서현아 이거 내가 가져도 되지?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선생님이 들어오고 아이들 모두 제자리로 뛰어간다.

선생님 : 자, 체육시간이니까 책상 위의 물건들은 잘 정리 해 놓고 운동장으로 나가자.
아이들 : 네!

아이들 재잘거리며 어지러운 물건들을 챙기고, 동훈이가 서현이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

동훈 : 안녕.

서현 : 어, 안녕…….

 여러분이 동훈이라면, 서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해 보고
뒷이야기를 완성해 봅시다.

#5. 체육 시간, 운동장.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나요?

나의 평가				
				